

전남 중부권

‘개불’ 국내 첫 인공번식 성공

강진 사초리 연안어장 90% 이상 성체 성장 2~3년 후 본격 채취... 年 500억 수익 기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불의 인공 번식에 성공해 농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소는 최근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연안어장에서 개불 번식상태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성체(成體)로 성장하고 m당 50~60개체의 어린 개불도 확인됐다.

어가면 연안어장 활용은 물론 500억 원대의 신규 수입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소 김용만 담당은 “바지락과 개불은 채취 시기가 정반대인 만큼 복합양식에 아주 적합하다”며 “중요 이식 방법 등을 마을 어촌계 등에 기술지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맛·향 일품... 강진 토종 고사리 첫 수확

강진군 병영면 들녘에서 고사리 수확이 한창이다. 군은 틈새 소득작물 육성의 하나로 고사리 재배(62농가·12.5ha)를 추진, 올해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다. <강진군 제공>

강진산 수국 올해도 일본 수출길

3년째... 10월까지 절화 10만본 5억여원어치

강진산 수국(水菊)이 지난 2010년부터 3년째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 강진군은 최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군 관계자와 화훼농가, 수출 대행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협약을 맺었다. 이달 중순부터 선적에 들어가 오는 10월말까지 절화(折花=가 지째 꺾은 꽃) 수급 10만본(5억원 상당)을 수출할 예정이다.

강진 절화수국은 지난 2005년 칠랑면에서 0.1ha 시험재배를 통해 시작됐다. 이듬해인 2006년 5월 국내시장에 첫 출하되면서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2007년부터 재배가 확대됐다. 현재는 14농가가 4ha면적에서 절화수국을 재배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장흥군-완도수목원, 산림치유 업무협약

장흥군은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과 최근 산림치유와 체험, 서비스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편백숲 우드랜드와 완도수목원 상호간 식물자원, 목공예 전시물 등 자료와 교육정보, 현장체험, 전시회와 같은 행사교류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양 기관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사회적기업 3곳과 지원약정

명하햇곡·전문예술극단 예인방·화탑영농조합

나주시는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3개 업체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올해 신규로 지정된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3개 업체와 재정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사진> 체결 업체는 천연염색 원단과 천연비누를 제작하는 (주)명하햇곡 및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 화탑영농조합 등 3곳이다.



보공유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공한 기업의 벤치마킹과 혁신적인 사고의 기업운영을 통해 안정된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어내 사회적 기업의 가치실현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나주시에는 2개의 사회적기업과 7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정돼 육성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acson@

도 농기원, ‘패션 프루트’ 시험재배

전남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이달에 과수인 ‘패션 프루트’ <사진> 시험재배에 나섰다. 과수연구소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전남지역 6농가 1ha규모에 ‘패션 프루트’를 시험재배 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올해 무거운 하우스에 알맞은 육묘기 및 정식시기, 꽃가루 채취시기, 저장온도 구명 등 위주로 진행된다. 2013~2014년에는 고품질 상품과 생산을 위한 적정 착과량 구명, ‘패션 프루트’ 안전생산 재배기술 체계화 등을 연구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박재욱 연구사는 “패션프루트 시험재배 후 도내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 북

대학생들 취업 자신감 ‘팍팍’

24일 ‘원광대 청년 잡담(job談)’ 개최

지방 대학생들이 스스로 취업 고민과 소중한 경험담을 나누는 취업축제를 연다. 원광대와 원광대는 24일 원광대 새천년관에서 ‘제1회 원광대 청년 잡담(job談)’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대학생 멘티 150명과 함께 취업 멘토 30명, 봉사 스템 40명,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참여하게 된다. 대학마다 취업률이 가장 큰 화두인 가운데 이번 행사는 자신들의 진로탐색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써 원광대에서는 처음 일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청년은 원광대 재학생 안준민(국문과)씨와 안수빈(경영학부), 홍승현(법학과), 김진선, 김용호, 이선혜, 박민우씨 등이다. 이들은 1개월 전부터 행사를 기획하고 멘토·멘티를 모집, 교내 홍보, 자발적인 프로그램 마련에 힘을 쏟았다. 도는 일자리 종합센터 채용정보 제공을 비롯해 도민홍보, 사업비 일부 지원을 하게 된다. 전북도 한옥재 일자리정책관은 “대학생 취업률 프로그램은 그동안의 취업고민 상담으로 구성해 알차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내 모든 대학으로 청년잡담을 확산시켜 취업포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말산업 육성 기반구축 박차

도, 농수산부 마필사업 공모에 93억원 신청 경마공원·특구지정·전문가 TF팀 등 계획

전북도가 관광레저과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말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전북도는 최근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는 ‘2013년 마필산업육성사업’에 14농가 4개사업 93억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해설계도적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후속조치로 올 상반기 말산업 육성·유통개선, 승마의 대중화 보급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말산업육성 지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은 지자체, 대학, 재활 승마센터 승마시설에 개소당 15억원 이내, 마장(5칸 이상), 관리사, 창고, 퇴비사, 외승 코스에 개소당 5억원, 말 구입은 3두 이상 두당 5000만원을 공모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올해 전주 기전대학은 재활 승마센터 승마시설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 13억원을 확보해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에 시설할 예정이다. 순창군 역시 2013년 공모사업으로 공공 승마장 시설을 신청했다. 군은 총 30억(국·도비 10억, 군비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최근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을 초청 특강을 한 바도 있다. 도는 올해 ▲장수군 말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27억원 ▲고창군 체험 승마사업 5억원 ▲김제시 재활 승마사업 13억원·어린이 승마체험 교실운영 2억원 등 총 47억원을 투자해 말육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도는 올 상반기중 정부의 말산업 종합계획이 발표되면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해 경마공원 유치도 비롯한 ‘말산업 복합단지’ 조성, ‘말산업특구’ 지정 등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올 1월 구성된 말전문가 TF팀을 부교리에 시설할 예정이다. 순창군 역시 2013년 공모사업으로 공공 승마장 시설을 신청했다. 군은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순창 강천산지구 전원마을 조성

총사업비 42억 들여 20세대 조성

순창군은 강천산 국립공원 인근에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강천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순창군에 따르면 팔덕면 정계리 일원 2만2423㎡ 부지에 군비 11억, 기부담 31억 등 총사업비 42억원을 들여 20세대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도로, 상·하수도, 오수 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상반기내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20세대의 주택건축을 시작해 2013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입주자 주도형으로 추진될 강천산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북여성 젠더 축제’ 여성가치 높인다

여성계와 여대생이 함께 어우러져 여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1회 전북여성 젠더(gender) 축제’가 최근 전북 여성 일자리센터에서 열렸다. <연습스

단 신

전북, 인삼농가 탄저병 발생주의보

전북도내 인삼재배농가에 탄저병 발생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김제, 정읍, 고창 등 평야부 인삼 재배지에 탄저병이 발생해 피해가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인삼의 주요병해인 탄저병은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 중순부터 주로 기습을 부렸으나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발생했다.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연구소 김동원 담당은 “저지대 논·하천변 인삼재배지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우려돼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24일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 강좌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 제3강좌가 마트형 시장으로 새로 개장한 군산 공설시장에서 2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번 강좌는 남정광 의사를 초청, ‘갑상선암, 식습관으로 개선’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여성 전체인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갑상선암에 대한 진실과 예방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남정광 의사는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가톨릭 의대 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군산동군산병원 유방갑상선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환경공단 전북지사, 녹색성장 업무협약

김제시는 한국환경공단전북지사(지사장 이진수)와 21일 시청 상합실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선도 및 환경문제 해결·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내 자원재활용 및 분리배출 교육, 자원순환업체 창업지원 등 지역 환경산업에 신기술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일선에 ‘환경사랑 위탁교육’을 무상 실시, 일반시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홍순선기자 hnews@

정읍 스크론훈 안전시설 설치 완료

정읍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크론훈 4개소에 각종 안전시설을 개설했다. 시는 국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 등 총 5억원에 들여 정읍 유치원, 칠보백암, 영산, 서산초등학교 4개소에 미끄럼방지 포장, 보호헬스, 교통표지판 설치 등의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이달 한 달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